



‘갤러리 아하’에서 개인전을 갖는 주대희(오른쪽) 씨와 무등산 풍경소리 상임이사 최명진 목사.

‘김원중 달거리’ 막 열립니다

日 우타고에합창단 영상 공연...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2003년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첫 선을 보인 ‘김원중의 달거리’는 앞에 ‘북한 어린이 사랑 모으기’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콘서트를 이끈 가수 김원중을 비롯,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은 매달 한차례씩 공연을 열었고, 관객들은 공연을 보고 난 후 작은 정성을 보냈다.

2004년 전국적으로 북녘어린이 빵공장 사업본부가 만들어졌고 김원중의 달거리는 2년간 모은善款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이 기폭제가 돼 평양 대동강에 북한 영양빵공장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매일 1만개의 빵이 만들어지고 있다.

휴지기를 가진 김원중의 달거리는 2010년 다시 출발하며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후 없었던 달거리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은 시민 성금은 7670만원에 달한다.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가 올해도 계속된다. 3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3월 공연의 주제는 ‘대박’이다.

김원중의 달거리는 다양한 장르의 결합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역시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며 클래식, 국악, 미술, 대중음악, 미디어 아트, 회화 등 다양한 장

르를 아우르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건 화상 중계를 통해 달거리 공연의 취지에 공감하는 외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공연장에서 볼 수 있게 된 점이다. 3월 공연에서는 일본 우타고에합창단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작곡가 박희씨가 클래식&재즈 감독으로 새롭게 합류했고, 바다프로젝트(임용·김영훈·김현우),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광주알핀로제요들클럽이 한 배를 탔다.

‘달거리’의 오랜 동반자 가수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정은주·박우진·조성우·송기정), 윤진철 광주시립국악단장, 샌드대니메이션 작가 주홍,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씨는 올해도 함께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뮤지션을 소개하는 ‘졸탁’, 영화속 노래찾기 등의 코너도 이어진다.

공연장을 갤러리로 변모시키는 작가들의 참여도 계속된다. 한희원·김해성씨가 선정한 올해의 참여 화가는 김정연·류현자·문정호·서병욱·윤해옥·이준석·최병구·허달용·황순철씨다. 작가들의 작품은 12월에 열리는 참여작가 그림전에서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3월의 참여 작가는 김중안씨다. 입장료는 없고 공연 후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보태면 된다. www.kim-wonjoong.com /김미은기자 mekim@

“음악·미술 장르 넘어 ‘문화 공감’ 나눠요”

무등산 풍경소리 도심 문화공간 ‘갤러리 아하’

매달 한차례 무등산 자락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다. 무등산에 숨겨져 있던 이 음악회는 연젠가부터 광주 시민들의 문화가 됐다.

‘무등산풍경소리’는 (사)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진화 스님·이하 풍경소리)가 지난 2002년 7월 중심사 주차장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꾸미면서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입적한 일철 스님의 뜻이었다. 이후 종교계와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동행했고, 지역 문화

계 관계자는 물론 이상은, 안치환, 한보리, 하림씨 등 음악인들과 시인, 소설가 등이 다녀갔다.

풍경소리가 지난해부터는 더 젊어지고 있다. 풍경소리가 무등산의 소리를 도심에 들려주고 싶어 지난해 9월 금남공원 옆에 ‘갤러리 아하(AHHA)’를 만들면서부터다. 갤러리 아하는 11년 만에 생긴 풍경소리의 보금자리이자,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 다양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이다.

26일 찾아간 갤러리 아하는 금남공원 옆 건물 3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서자 그동안 풍경소리의 추억과 흔적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금남공원 쪽 뻗은 소나무 사이로 새하얀 꽃을 피운 목련이 눈에 들어왔다. ‘아하’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거나 깨닫는데서 나오는 감탄사다.

풍경소리 상임이사 최명진(47) 목사는 “풍경소리가 생명·환경운동에 중심을 뒀다면 갤러리 아하는 지역문화까지도 아우르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하에서는 그동안 개관전으로 열린 ‘산-18인의 시선’전을 비롯해 모두 10차례가 넘는 전시회가 열렸다. 개관전에는 한희원, 고근호, 박태후 등 18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랑의 씨앗 수녀회가 후원하고 있는 ‘에과도르 장에인화교 및 진료소’를 돕기 위한 도네이션 파티를 개최, 미술인들이 기부한 작품을 전시, 수익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세미나실에서 젊은 영화인들의 모임 등 소소한 모임이 자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최 목사는 “저희와 다른 시민, 단체들과 음악을 떠나 문화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간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하’가 나,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특별한 풍경소리 음악회가 열렸다. ‘118회 무등산풍경소리’는 그동안 행사들과는 달리 음악인들이 아니라 화가가 메인인 음악회였다. 한국화가 주대희씨의 ‘웃음으로 살짝 덮어놓은 울음’전을 아하에서 열고, 심세희(가야금명창)씨와 임황철(대금)씨 등 국악인들이 함께 했다. 주씨는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누굴 위해 웃는가’ 등 모두 1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씨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대부분 미술 관계자, 동료, 선배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음악인, 문학인, 시민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며 “미술과 음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만 다르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작가는 ‘웃음으로 살짝 덮어놓은 울음’이라는 아이러니한 주제를 잘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인 웃음과 슬픔 중에서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나를 감추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웃음도 좋지만 때론 실컷 울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풍경소리는 최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부문 대상(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 최 목사는 “수상기념으로 올해 1년 간은 무상으로 오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정된 장르가 아니라 미술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시도 공간을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아하를 나서는 길 “도심에 있지만 가을이면 큰 은행나무가 도심에 가려버린다. 놀러오라”며 최 목사가 풍경소리 10주년 기념음반 ‘손잡이요’를 건넸다. 문의 062-226-0826.

/김영민기자 kki@-/사진=최현배기자 choi@

지난해 9월 개관...작가-시민 예술 소통
다음달 4일까지 주대희 작가 초대전
풍경소리 공연 118회 진행...교보환경대상 수상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 공연 모습.

(무등산 풍경소리 제공)



이조홍·정선희씨 등 6명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선정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정선희, 성유진, 김유석, 개미필름, 이조홍(이상 미디어아트), 추민승(스토리텔링) 씨 등 6개 팀을 3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참여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조홍씨는 2기에 이어 재선정됐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에서 운영

중이다.

문화재단은 이번 입주 작가들은 음악, 영화 등을 미디어아트와 시도하는 등 다른 장르와의 융·복합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선정 작가들은 4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입주해 개인 창작 활동과 함께 협업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폐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라인)

부담없는가격·풍부한 샐러드 바
웰빙의 야채와 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